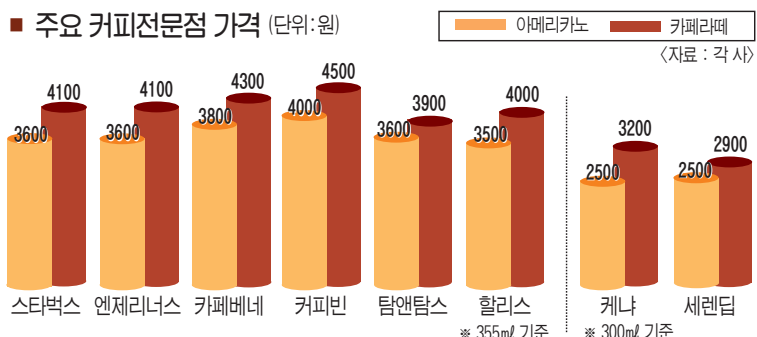


인기짱 토종 브랜드커피 “가격도 착해”

케냐·세렌딕 ‘아메리카노’ 1잔 2500원 최저
외국계 커피빈 4500원 등 대부분 4000원대



지역 커피시장에서 감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토종 브랜드 세렌딕, 케냐, 커피 볶는 집 등의 커피 가격이 국내외 유명브랜드 커피브랜드들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24일 광주지역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커피빈, 할리스, 탐앤탐스, 세렌딕, 케냐, 커피볶는 집 등 주요 커피전문점의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역 토종브랜드인 세렌딕과 케냐의 아메리카노가 2500원으로 가장 싼데, 커피빈의 카페라떼가 4500원으로 가장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커피전문점이 아닌 던킨 도너츠와 파리바게트의 아메리카노는 3000원으로 역시 토종브랜드인 세렌딕과 케냐, 커피 볶는 집보다 비싸거나 같았다. 다만 토종브랜드인 세렌딕과 케냐의 사이즈가 컷과 볼로 구분되지 않고 레귤러(300ml)로 통일 돼 있고, 커피볶는 집을 비롯한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커피빈, 탐앤탐스, 할리스는 355ml를 기준으로 용량에 따른 가격차이는 있다.

지난해 커피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료는 에스프레소 원액에 물을 더한 아메리카노로 지역토종 브랜드인 세렌딕과 케냐가 25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커피 볶는집이 3000원으로 역시 유명브랜드들보다 가격이 싼다. 커피빈은 400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카페베네 3800원, 최근 가격을 인상한 탐앤탐스를 비롯한 스타벅스, 엔제리너스가 3600원이었다. 할리스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3500원이었다.

아메리카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카페라떼 역시 세렌딕이 29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케냐가 3200원, 커피볶는 집이 3600원 순이었다. 커피빈과 카페베네가 각각 4500원, 43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 세렌딕은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가 3000원을 넘지 않은 2000원대를 유지한 유일한 브랜드였다. 탐앤탐스의 카페라떼는 3900원으로 국내외 유명브랜드 중 유일하게 3000원 대였다. 할리스 카페라떼의 가격은 4000원으로 탐앤탐스에 이



블랙 메탈·화려한 진주 ‘女心 유혹’

광주신세계 (총괄임원 조창현) 지하3층 패션스트리트 히노 매장에서 2011년 유행할 봄 컬렉션 액세서리를 선보여 여성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올 봄 유행 컬렉션은 블랙톤의 메탈목걸이와 큐빅이 많이 박힌 타이목걸이, 화려한 오피스룩과 진주제품이 여성을 유혹 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제공>

선불카드 이용건수 지난해의 2배

지난해 선불카드 이용건수가 전년 대비 116.7%가 늘어나면서 18만건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0년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선불카드 이용건수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하루 평균 17만8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8만200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선불카드 이용금액도 65억원으로 1년전 35억원보다 82.8%나 급증했다. 선불카드란 고객이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해당 금액이 기록된 카드를 발급받아 잔액 범위 내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살 수 있는 카드로

공중전화카드, 기프트 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체크카드 이용건수도 하루 평균 388만1000건으로 전년 287만4000건보다 35%가 늘었고 이용금액은 1419억원으로 전년 1000억원보다 42%나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1593만건, 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9.2%, 5.9%씩 증가했다. 발급장수는 1억1659만장으로, 전년말 1억699만장보다 9.0%가 증가해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장수는 전체 인구기준 2.4장, 경제활동 인구기준 4.8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청소년 경제강좌’ 초·중·고 내달 2일부터 접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011년도 ‘한국은행 청소년 경제강좌’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청소년 경제강좌는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합리적 소비 및 저축’, ‘시장 경제 원리’ 등 청소년의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를 통해 3월 2일부터 접수한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올해도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저축은행 예금인출 사태 종료”

당국과 업계가 저축은행 예금인출 사태가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24일 “현재 대부분 저축은행의 예금지급이 평소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인출 사태는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예금자

의 불안감과 대규모 인출 사태가 거의 진정돼 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태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규모는 이날도 계속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97개 저축은행의 예금 순유출 규모는 지난 17일 3000억원에서 18

일 4800억원, 21일 5000억원으로 올라갔다가 22일 2210억원, 23일 1150억원으로 감소했다. 예금자의 불안감이 가장 컸던 부산 지역에서는 순유출액이 22일 413억원에서 전날 132억원으로 줄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계는 그동안 불안감에 돈을 찾아두고 사태를 관망하던 예금자들이 서서히 돌아오는 추세라고 전했다. 당국은 전날 예금이 순유입된 저축은행이 전국적으로 20개를 넘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채소·육류값 하락? “그래도 비싸다”

채소와 육류 소매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감세를 유지하고 있다. 24일 농협유통에 따르면 하나로클럽 양재점 기준으로 배추는 1주일새 11.3% 내린 1포기당 4천300원으로 여전히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대과와 무는 각각 19.6%, 6% 값이 내려 1단에 1890원, 1개에 1480원이다. 사과와 토마토, 감귤 등 과일들은 지난해와 같은 시세를 유지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값이 오른 돼지고기 삼겹살과 생닭은 각각 2490원(100g 기준), 6910원(851g)으로 지난해와 같은 가격이 매겨졌으나 판촉 행사로 각각 2060원, 5300원에 할인 판매 중이다. 한우는 갈비 1+ 등급이 100g당 5850원으로 1주일새 14.6% 떨어졌다. <연합뉴스>

영업정지 8곳...지각변동 불가피

저축銀 업계 순위 변동·경쟁구도 달라질 듯

저축은행 8곳에 대한 영업정지로 업계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저축은행 업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 만큼 이제는 ‘시장 정리’에 착수할 시점이다. 큰 폭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매각 등 구조조정)의 인위적인 목표를 내세우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8곳의

자산을 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 12조 6000억원으로 전체 저축은행 자산 86조9000억원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한계에 따라 업계의 순위 변동은 물론 경쟁구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업고 11%의 시장점유율로 업계를 이끌던 부산계열이 영업정지되면서 점유율 1위는 한국계열(10%)이

됐다. 솔로몬계열(9%)이 그 뒤를 잇고 토마토계열과 현대스위스계열이 7%씩, 제일계열이 6%를 차지했다. 가장 큰 변수는 이번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가운데 과연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지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영업정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데, 금융지주사와 제2금융권의 다른 금융회사 상당수가 인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에서 대거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도 관심사다. 당국의 파악 결과, 대규모 예금인출이 이뤄진 기간에 솔로몬, 현대스위스, 미래, 제일 등 일부 계열에는 예금이 더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2년연속 두자릿수

국내 증시 상승 긍정적 영향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에 힘입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올해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연금기금 운용현황을 보고하고 결산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안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순자산은 323조9908억원으로 전년 말의 277조6424억원에 비해 16.7%(46조3484억원) 늘었다.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66.9%를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주식에는 17.0%, 해외 주식 6.2%, 대체투자 5.8%, 해외 채권 4.1% 비중으로 자산을 배분해 투자하고 있다. 자산별 작년 수익률은 국내 주식이 24.32%, 해외 주식 12.12%, 대체투자가 8.21%, 국내 채권이 7.64%, 해외 채권이 7.04%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고 주식시장이 이에 연동해 상승국면을 이어가면서 자산 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셈이다. <연합뉴스>

다만 국내 채권의 경우 수익률이 벤치마크 지표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남겼다. 전체 기금자산의 수익률은 10.38%로 지난해(10.39%)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고, 수익금 규모는 30조 1408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내외부 평가에 관한 평가를 받아 오는 6월 중 지난해 기금 운용 성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대내외 경제전망을 반영한 향후 5년간의 중기 자산배분 계획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완벽한 방수성 + 리모델링 효과로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無중금속

無독성

내구성 내마모성

내오염성

이파엘지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공순서

1. 시공전
2. 비탈정리 및 고압수크린징
3. 하이브리드 외벽프라이머
4. 하이브리드 외벽마감1차
5. 하이브리드 외벽마감2차

칼라단열외벽방수공법 - 특허 제0544371호 -

시공후

IPALG (주) 이파엘지 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목조주택 & 리모델링 전문업체

친환경 제품 | 각종 내장재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 전시장 2층 | 편백나무 전시장 4층

■ 판매품목: 창호·5D서랍장·수납공간·불박이장·축욕기·독서대·책상 Set(의자·책꽂이)·침대·샴푸·편백베개·베개(편백 씨앗+결명자 씨앗)·편백기수기 수액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주문제작 | 판매 및 창업문의
전국·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 010-3609-4321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 652-2935 · 2223 FAX: 062) 651-5141

편백나무는 무병장수의 나무입니다.

편백나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www.oknwood.com

▲베개(편백나무씨앗+결명자씨앗)

▲베개(편백나무씨앗+결명자씨앗)

▲편백나무베개

▲편백나무베개

목조주택 & 리모델링 전문업체

친환경 제품 | 각종 내장재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 전시장 2층 | 편백나무 전시장 4층

■ 판매품목: 창호·5D서랍장·수납공간·불박이장·축욕기·독서대·책상 Set(의자·책꽂이)·침대·샴푸·편백베개·베개(편백 씨앗+결명자 씨앗)·편백기수기 수액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주문제작 | 판매 및 창업문의
전국·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 010-3609-4321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 652-2935 · 2223 FAX: 062) 651-5141